

면목7동

어르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면목7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성구)는 지난 7월 25일 동 주민센터 2층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중복맞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각 직능단체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하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상봉1동

엄마와 함께 도자기 만들어요~

상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경양)는 지난 8월 16일 자치회관에서 『엄마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엄마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는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모양의 비누받침이나 컵 등을 만들고 문양을 그려넣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색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상봉2동

가평 목동수련원, 황순원문학촌 다녀왔어요~

제2권역 주민자치위원회(면목5동 위원장 남상중, 상봉2동 위원장 강석진)는 지난 7월 29일 초등학교 15명과 함께 ‘가평 목동수련원’으로 여름방학 체험



학습을 떠났다. 이번 체험학습은 승마체험, 4륜 오토바이 타기, 감자전 만들기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또한 상봉2동 새마을문고회(회장 오명섭, 안명숙)에서는 지난 8월 9일 관내 초등학교 15명과 함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경기 양평)’을 다녀왔다.

묵1동

여름방학 어린이 POP(예쁜글씨) 개강

묵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옥순)는 8월 한달간 4회에 걸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 POP 예쁜글씨교실을 진행하였다.

‘POP 예쁜글씨’는 매장홍보, 사인, 간판 등에 이용되는 홍보수단으로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고도의 표현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POP의 기초가 되는 아이체 쓰는 법과 이미지 표현 방법 등을 배워 글씨 교정과 창의능력 향상 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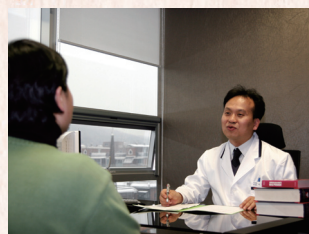
묵2동

알코올중독!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내요

묵2동 성모마음정신과의원(원장 이정국, 박정미)은 지역사회 나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알코올중독 가족을 위한 ‘회복여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성모마음정신과의원은 묵2동 주민자



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망우본동

여름방학 ‘외갓집 민속마을’ 체험

망우본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화창)는 지난 8월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5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외갓집 민속마을을 다녀왔다.



저소득가정 8명에게 행사참가비 전액을 지원한 이번 체험학습은 황토머드팩 놀이, 맨손으로 송어 잡기,

옥수수 따기, 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였다.

망우3동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국수’ 대접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명수)는 중복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6일과 29일 관내 경로당(햇님, 샛별)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사랑의 국수를 대접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은 국수, 떡, 과일, 술 등을 정성껏 마련하였고 직접 서빙도 하며 말벗도 해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마련해 드렸다.

지역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실천할 계획이다.



중랑구자원봉사센터의 우수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취재 김준우

느티나무봉사단 그들의 땀으로 사랑을 나누다

우면산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피해지 일대, 현장으로 달려가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복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현장, 수해 피해로 실의에 빠진 이들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돌아온 중랑구 느티나무봉사단(단장 이순만)이 있다.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틈새계층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2009년 다양한 직업을 가진 봉사자들이 모여 구성된 느티나무 봉사단은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한 노력봉사, 틈새계층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등의 나눔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린스타트 운동’ 캠페인 봉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우면산 산사태 복구에는 느티나무 봉사단원은 물론 가족까지 힘을 합쳐 총 91명의 봉사자들이 모래주머니 만들기, 침수된 가구·집기 닦고 말리기, 빨래, 설거지 등의 봉사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느티나무 봉사단! 오늘도 그들의 땀방울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 2094-1615

